

살인폭염에 지친 지역민...지자체 안전대책 풀가동

광주 16일째·전남 17일째 폭염경보
온열질환자 각각 38명·224명 발생
광주 폭염 일수 전국 평균 크게 상회
평균 체감 기온도 대구보다 높아져
광주시·전남도 대책본부 가동
재난도우미 투입 방문·전화 안부
폭염 취약계층 보호 활동에 집중



폭염이 계속된 6일 오후 광주 동구 내남동 구립도서관 '숲정원'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으며 더위를 피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역대급 폭염이 2주일 넘게 광주·전남을 덮치면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하고, 농작물·가축 피해 등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이례적으로 폭염을 피해 일요일과 공휴일 프로야구 경기 시간을 변경했다. <관련기사 2·3·19면> 또 수산물에서는 비브리오균출몰이 크게 증가하는 등 먹거리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사무실 등 밀집 공간 내 냉방기 가동으로 한 달 새 코로나19 발생률이 4배 이상 늘고, 병원마다 냉방병 환자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폭염 피해 상황이 해를 거듭할 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지역인 광주의 연간 폭염일수는 이미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섰으며, 습도가 높은 '습한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광주시민이 느끼는 '체감기온'은 여름철이면 아프리카처럼 덥다는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대구마저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광주시민을 힘들게 하는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노후주택과 고령층이 많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고, 도심 곳곳에 폭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폭염특보는 지난달 20일부터(주의보 발효) 18일째, 폭염경보(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 2일 연속 예상)는 지난달 22일부터 16일째 이어지고 있다. 전남에선 곡성, 구례, 화순군 등에서 지난달 21일부터 17일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폭염에 따른 올해 광주 온열질환자는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총 38명이며, 남성이 81.6%로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은 주로 작업장(55.3%)과 논밭(13.2%) 등에서 발생했다.

전남에서도 올해 224명(사망 1 포함)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전남 80

개 농가에서는 총 7만 3386마리의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7-8일에도 낮최고 기온이 32-34도를 넘어서는 등 다음주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위기경보 비상단계를 '심각'으로 조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가동하는 등 폭염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폭염 대응 비상근무자 49명을 배치하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 재난도우미 651명을 투입해 폭염 취약자 838명을 직접 방문하고, 전화(2137회) 안부 묻기 등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해를 거듭할 수록 폭염일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단기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광주정책포커스 '여름철 폭염에 따른 광주지역 영향 및 대응 방향'에 따르면 기상청 주요 관측소의 20년간(2004년-2023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2.6일이었으며 광주는 18.6일, 대구는 30.8일

이었다.

이를 최근 10년으로 좁히면, 대구는 오히려 폭염 일수가 0.9일 줄어든 반면 광주는 3.4일 증가했다. 두 지역 간 폭염일수 격차가 14.3일에서 10일로 좁혀졌다.

이는 최근 광주의 폭염 상황이 대구 등 타 지역보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폭염특보 기준이 '체감온도'로 바뀐 2020년 이후 광주시민이 느끼는 평균 체감기온은 대구보다 0.6도나 높은 36.2도에 이른다.

이는 광주의 폭염 발생일 기준 평균 상대습도가 80.5%로, 대구(66.7%)보다 '습한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연구원은 대구보다 심각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주 전체 75개 행정동 가운데 노후주택과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계림2동 등 45개 행정동을 '폭염 대비 우선지역'으로 분류하고, 우선적으로 주거시설 등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또 도심 곳곳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지정 및 폭염 대응 물품 비축·관리 체계마련, 재난관리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폭염 대응 역량 강화 등도 제안했다.

광주연구원 김연수 연구위원은 "광주는 미래 기후변화로 인해 연평균 기온 및 폭염일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폭염을 막을 수는 없지만,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촘촘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불평등을 해소하고 안심도시 광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내년 상반기 군공항 예비후보지 선정되면 광주 민간공항도 함께 무안으로 이전해야”

김영록 지사 2차 3자회담 제안

김영록 전남지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후보지 선정이 이뤄지면 광주의 민간공항도 동시에 무안 공항으로 이전해야 KTIX 개통을 계기로 무안공항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되면 이전후보지 선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에 관사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광주시는 이전후보지 확정이 이뤄져야 민간 공항(국내선)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되면 민간공항도 즉시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전후보지 확정 단계에서 민간 공항을 옮길 경우 활성화를 위한 시간도 많이 걸리니 광주시가 ‘통 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선 민간공항 이전, 후 군공항 이전을 담은 지난 2018년 3차 협정서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정지권 안팎에서는 김 지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문제 해결에 총력을 쏟을 테니 강 시장도 광주 국내선 이전을 통한 서남권 거점 공항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김 지사는 이같은 점을 감안,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을 다음 2차 ‘3자 회동’을 추석연휴 전에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첫 3자 회동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로, 첫 만남이라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2차 회동은 되도록 빨리, 추석절 이전에 만나자고 광주시와 무안군에 제안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앞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무안 지역발전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인공지능(AI) 첨단 농업 융복합지구 등을 통한 미래 생명산업 육성과 호텔, 카지노, 컨벤션센터를 포함하는 무안공항 관광·국제물류 특구 등 미래형 신도시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한 후, 내년에 강원·전북 사례와 같이 특례 권한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생수당과 관련한 본격 추진 방침도 밝혔다. 김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거의 마무리 수준”이라며 “내년부터 전남도와 시·군이 출생아를 대상으로 19세까지 20만원의 출생기본소득을 주는 게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자치구의회 '황제 방방' 논란	▶6면
안세영 '작심 스매싱' 체육계 흔들다	▶18면
굿모닝 여행 - 인기 테마마을의 매력	▶22면



진화, 그 이상의 새로움

The new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인중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20 d 4M EX · 배기량:1999,공차중량:1975, 자동9단, 복합연비:15.4(도심연비:13.6, 고속도로연비:18.4), 등급:2, 복합CO2 배출량:122
· E 300 4M EX · 배기량:1999,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6(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300 4M AMG line · 배기량:1999,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6(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450 4M EX · 배기량:2999,공차중량:1970, 자동9단, 복합연비:10.5(도심연비:8.9, 고속도로연비:13.4), 등급:4, 복합CO2 배출량:1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